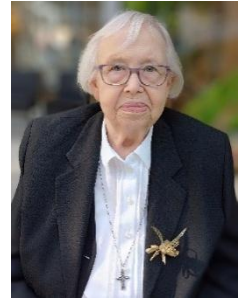


부 고

마리아 아그네시 MARIA AGNESIE 수녀

ND 5608

엘리자베스 베네보르거 Elisabeth VENNEBÖRGER



독일, 코스펠드, 여왕이신 마리아 관구

출 생: 1935 년 9 월 8 일 벨렌
서 원: 1960 년 8 월 12 일 코스펠드
사 망: 2026 년 9 월 23 일 코스펠드, 안네타 수녀원
장 례: 2026 년 9 월 30 일 코스펠드, 수녀원 묘지

가족과 이웃들에게 단순히 “리젤”로 알려진 엘리자벳 베네보르거는 보르켄 지역의 벨렌에서 오빠 요제프와 함께 자랐다. 리젤이 아홉 살 때, 아버지 요제프 베네보르거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다. 어머니 아그네스 베네보르거(처녀명: 바르츠)는 힘든 전쟁 기간 동안 홀로 자녀들을 돌보았다. 리젤은 종종 어머니의 걱정과 고충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전쟁에서 돌아오면, 감사의 표시로 케벨라어의 성모님께 순례를 떠날거야...”라고 말하곤 했고, 그 약속을 성실히 지켰다. 몇 년 후, 리젤이 이미 우리 수녀회에 입회한 지 오래되었을 때, 리젤은 뜻을 같이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북홀트에서 케벨라어까지 순례를 떠났다. 그 여정은 가족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벨렌에서 학교를 마친 후, 처음에는 집에 머물렀다. 1953 년부터는 레클링하우젠-수더비히에 있는 카리타스 센터에서, 그 후 북홀트에서 미취학 아동들을 돌보았으며, 1957 년 우리 수녀회에 입회할 때까지는 람스도르프의 유치원에서 우리 수녀님들과 함께 일했다.

1958 년 8 월 착복식에서 리젤은 마리아 아그네시 수녀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그 후로 어머니의 이름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무척 기뻐했다. 1960 년 8 월에 유기 서원을 발했고, 1965 년에는 로마에 있는 총본원에서 종신 서원을 발했다. 마리아 아그네시 수녀에게 미취학 아동들과 함께하는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었다. 수녀가 사도직을 행한 곳으로는 바슈타인, 뤼넨, 북홀트 등이 있다. 바슈타인 시장은 기록에 이러한 증언을 남겼다. “마리아 아그네시 수녀님이 떠나셔서 무척 아쉽습니다. 수녀님은 매우 사랑스럽고 유능한 우리 유치원 원장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을의 학부모와 아이들과 깊은 유대감을 맺고 계셨으며, 동료들에게는 언제나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수녀는 1975 년 웨히타에서 공인 유아교육사 과정을 수료했다. 그 후 북홀트의 성 바오로 유치원 원장을 맡아 25 년간 봉사했다. 수녀는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교육자였으며—친근하면서도 일관된 태도를 지녔고—자녀 양육이라는 종종 복잡한 문제에 대해 부모들에게 현명한 조언자 역할을 했다.

2005 년 오빠 요제프의 사망은 마리아 아그네시 수녀에게 큰 슬픔이었다.

교육 현장에서 은퇴한 후, 마리아 아그네시 수녀는 북홀트에 머물며 가사일을 돌보다가 2014 년 6 월 코스펠드의 안네타 수녀원으로 이주했다. 조용한 생활을 좋아했지만, 때때로 공동체 활동에도 참여하곤 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때때로 큰 불안감을 겪기도 했다.

결국, 심각한 낙상 사고와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받은 수술로 인해 침상에 누워 지내야만 했다. 기력이 점차 쇠약해졌다. 마리아 아그네시 수녀는 간호 및 지원 담당 직원들의 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았으며, 우리 수녀회 공동체로부터도 큰 지지를 받았다. 최근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조용히, 자신의 삶을 하느님의 손에 맡기고 세상을 떠났다.